

시행 착오 불구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업체별 제휴 활발, 한국통신 vs 데이콤 격전 불가피

지난달 1일부터 국내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시작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은행 업무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인터넷 인구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폭발적인 사용증가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은행이 인터넷 뱅킹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행 한달을 맞는 국내 인터넷 뱅킹 시장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회

사에 입사한지 4년째인 김대리는 여러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은행에 청약 통장, 조흥은행에 월급 통장,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받고 있다. 따라서 김대리는 요즘 일에 쫓기다보니 은행에 한번 가려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었다.

일하다보면 은행 업무 시간을 놓쳐 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물곤 한다. 물론 PC뱅킹을 신청했으나 회사 컴퓨터에는 모뎀이 없어 PC뱅킹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대리의 생활은 인터넷으로 시작해 인터넷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업무 자료 수집을 비롯해 백화점 쇼핑, 어학 공부, 그리고 사이버 주식도 해결한다. 따라서 김대리는 송금이나 계좌 조회 등의 은행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이런 김대리가 지난달부터 은행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이체부터 이자 납입, 송금, 평소에 관심이 많은 대출상품, 유용한 재테크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김대리는 인터넷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는 별도의 절차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 뱅킹 시행 한달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이 한국통신 시스템을 통해 정식 서비스

한 이래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이 인터넷 뱅킹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통신과 별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온 조흥, 국민은행도 시범 서비스를 거쳐 이달 1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한달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 사용시 접속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대출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은행이 시행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시행 착오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뱅킹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자신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즉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대출신청을 비롯해 대출원금 및 이자 납입, 송금, 계좌조회, 현금서비스 등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먼저 은행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 PC뱅킹 가입자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는 1세대, 유선전화망을 이용한 텔레뱅킹은 2세대, PC통신을 이용한 PC뱅킹은 3세대, 인터넷 뱅킹은 제4세대 은행기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PC뱅킹에서 했던 모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은행 안내, 금융상품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등 은행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한국통신의 가상은행 서비스인 '뱅크21C'에 참여하는 경우와 은행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은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등이 대표적인 경우며 한빛은행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9월말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통신 가상은행

현재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의 은행은 한국통신 인터넷 가상은행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 가상은행이란 한국통신이 시중 13개 은행과 공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개설한 것으로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위치한 은행이다. 은행창구가 아닌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통신이 은행들과 공동으로 선보인 것이다.

한국통신의 가상은행은 개별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은행간 자금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는 편의성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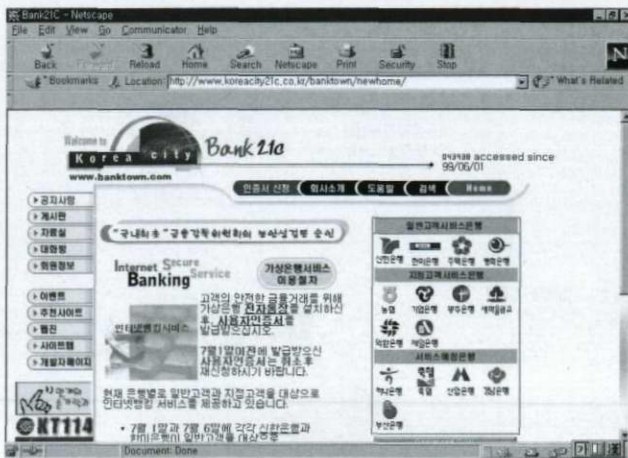
아울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24시간 가상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갖고 있다. 기존의 PC뱅킹의 경우 해외에서 이용하면 국제전화료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한국통신의 인터넷 가상은행을 이용하면 해당국 전화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13개 은행 중 주택, 평화, 신한, 한미 은행 등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가상은행을 이용하려면 우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인터넷 가상은행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조흥 및 국민은행 자체 시스템 구축

독자적인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개발한 조흥은행(chbib.chb.co.kr)은 자체 구축한 조흥인증센터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통해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조흥 은행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3차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

비스케이프(Viscape) 및 쇼크웨이브(ShockWave)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3D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 예금신탁 만기일 조회, 각종 해지 현황 등 일반 조회 기능과 함께 대출관련 조회, 어음 및 수표결제 현황 조회 등 여러 가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환율 및 국제금리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그림 1〉 한국통신 가상은행 화면

국민은행(banking.kookmin.co.kr)은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한달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 1일 본격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업무에 대한 데모페이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모페이지에서는 고객의 각 거래 통장에 대한 일괄조회 등 서비스와 계좌이체, 카드결제 금액 및 연체 상황 등 국민카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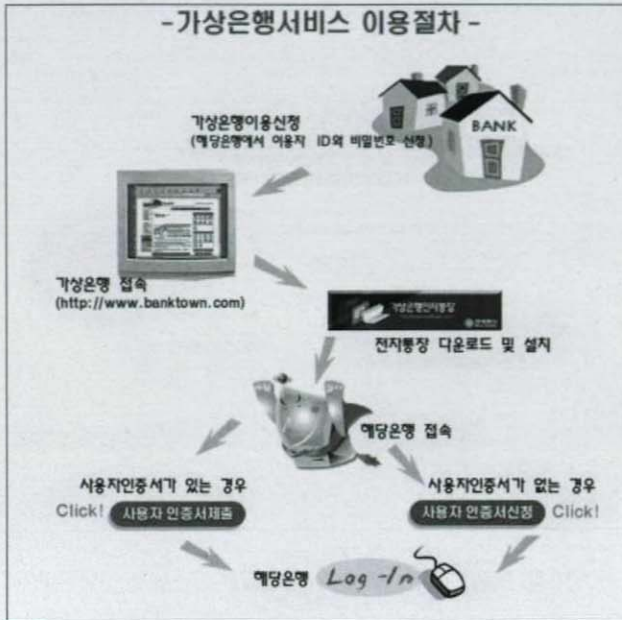
업체별 짝짓기 붐물

은행권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은행들은 자신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신한은행이 LG유통과 업무제휴를 했으며 한미은행은 삼성물산과 손잡고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나섰다. 또한 조흥은행이 인터파크와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으며 국민은행이 야후코리아와, 평화은행이 라이코스코리아와 업무제휴를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조흥은행은 양사 공동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우선 인터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쇼퍼몰(www.interpark.com) 이용고객들에게 조흥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건 구매시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파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티켓예매 서비스를 비롯해 사이버 증권, 사이버 보험 등 여타 금융업무와도 연계를 확대해 다양한 사이버 금융비즈니스를 공동으로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2〉 가상은행 서비스 이용 절차

라이코스코리아와 평화은행 제휴는 라이코스의 검색기능을 평화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평화은행측은 1,200만 이용자들에게 계좌이체, 대출소개, 대출신청, 신규개설 등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라이코스코리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마케팅, 이벤트행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은행과 삼성물산의 제휴는 인터넷뱅킹 사이트(www.korambank.com)를 통해 삼성물산의 인터넷쇼핑몰(www.samsungmall.co.k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은행은 쇼핑몰 이용고객에게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이익환원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삼성물산이 제공하는 인터넷무역 사이트인 파인드코리아(www.findkorea.com)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제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수익성보다는 고객편의 차원에서 업무제휴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는 시행 초기라서 한 은행이 한 업체하고만 제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은행이 여러 업체와 제휴를 해야 고객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 데이콤 한판 승부

한국통신의 가상은행 서비스와 맞물려 데이콤도 인터넷 뱅킹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통신 업계의 라이벌이 사이버 금융

시장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릴 전망이다.

데이콤은 오는 9월 국내 시중은행을 연결해 지불결제 및 계좌이체를 대행해주는 'E페이(E pay)'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페이 서비스는 국내 은행 및 보험, 증권사 등을 연결해 서로 다른 금융권간에 계좌이체 및 조회 등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해 주고 쇼핑몰과 연계,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결제를 대행해 준다.

한편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구상하는 서비스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한국통신 서비스는 이용자가 한국통신 가상은행 사이트나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반면 데이콤은 자사 사이트에서 원하는 거래를 선택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이콤 측 관계자는 "데이콤의 서비스는 금융권 중심이 아닌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각 개인에 맞는 금융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쇼핑몰 사이트와도 연계해 이용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데이콤의 계획에 따라 한국통신도 현재 은행권만을 연계한 서비스를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준비 중이다.

시장 주도권의 열쇠 '가격'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증권업계가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한 것처럼 인터넷 은행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인터넷 뱅킹의 승자는 대형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보유 운용자금 및 자금 운용 노하우에 인터넷기법을 접목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형 은행들은 전국적으로 보유한 지점들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점관리에 필요한 부동산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시대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 은행들은 기존 은행업무에서 과감히 탈피, 투자자문, 기업간자금중개 등으로 업무를 특화하는 게 바람직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형 은행보다 몸집이 가벼워 탄력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